

87 | 전여대협 총노선 풀기자 해설

발신 : 8기 전여대협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용도 : 올해 전여대협이 나아갈 바를 전망성있게 정리하고, 대학마다 여학생운동을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풀기자>

전여대협의 새로운 결심!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닦아,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풀기자 해설>

1) 전여대협, 새로운 결심만이 살 길이다!

2002년

여성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조직적으로 표출되어갈 시기, 반성폭력 운동의 한 획을 그어야할 시기, 6·15 공동선언 2돌을 맞는 시기인 2002년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어느 때와 같은 마음으로 맞아서 되겠는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헤쳐온 우리에게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실마리를 풀고 여성해방의 맘밍대해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여대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결심해야한다.

출발선에 선 달리기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각오와 자세를 새롭게 해야한다. 당장이라도 학우들 속에서 살아있는 일꾼이 되기 위한 각오와 자세로 내외적 준비를 다그치자. 그리고 마음먹은 것은 꿈장을 볼 때까지 해내고 미는 굽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여학생운동 대중화, 새로운 혁신을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자.

너무나도 절실히 결심하자!!

새로운 결심에서 나온 새로운 행동, 이것만이 살 길임을 짐작속에 새기자!!!

2)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빛나게 갚고 낚자!

여학생운동은 지난 몇 년간 그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것에 대한 과제가 시급하게 요구되어왔다.

그러한 운동발전의 요구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 수없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올해는 새로운 결심을 토대로 반드시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비약적으로 마련해야한다.

향기나는 꽃에는 자연스럽게 나비가 모이듯이 여학우들이 먼저 찾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여학일꾼들이 언제나 향기나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닦는 것은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한두달, 1년, 이런 식의 단기적, 단편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깊이있는 조직적 전망을 가지고, 장기적인 조직노선을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올해를 만들자.

이렇게 될 때만이 여학생운동다운 전문성을 획득해가고,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빛나게 갚고 낚아나갈 수 있다.

3)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전환적 국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소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조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전여대협에게 주어지는 여성민중의 요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을 다소 소극적으로 사고하고 대처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기에 올해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여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을 다각도로 준비해 본격적인 여성노동권 확보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로 만들자.

지난 수년간에 걸친 투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만들어진 현재,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성폭력을 비롯하여 가부장제는 여러 형태와 이름을 띠고 여학우들의 삶속에 깊숙히 작용하고 있다.

2002년, 전여대협에게는 이제까지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벌어온 반성폭력 운동을 한층 높이 끌어올려야 할 요구가 나서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고 학내 성폭력을 더욱 일상적으로 근절해나가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여학우들의 삶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자.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가 반성폭력 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내자!

6·15 공동선언 2돌을 맞는 올해는 조국통일에 있어서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때 여성들은 통일의 큰 주체로 자주통일의 하나같은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미제와 반통일 세력과의 침예한 대결전 속에서 여성민중들이 통일의 큰 주체역량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전여대협이 응당한 역할을 해야한다.

6·15 공동선언이 여성민중의 자주성 실현에서 기지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여성민중들과 함께 미제와 반통일세력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어나가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성들의 힘으로 열어내자!

언제나 전여대협의 새로운 결심으로 여성민중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